

일들의 당나귀 귀

2013.10.30~11.3

‘일’로 존재하는 당신!

대나무 숲을 찾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10월 30일~11월 3일 5일간

우리에게 그 대나무 숲이 열립니다.

전래동화

2013.10.30(수) 오후 7시 클럽 제스(홍대 앞)

1970년대. 그 잔혹했던 시대를 치열한 열정과 희망으로 이겨낸 ‘여공’이라 불렸던 언니, 누나들. 그녀들이 지금을 살고 있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들려줍니다.

출연 : 극단 ‘꾼’, 노래패 ‘아름다운 사람들’

내레이션 : 이충각(전 통일방직 노조), 신순애(전 청계피복 노조), 최순영(전 YH 노조)

당나귀 귀

2013.10.31(목) 오후 7시 클럽 제스(홍대 앞)

우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20대~50대까지 평범한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여성의 ‘일’을 주제로 토크쇼를 펼칩니다.

사회 : 최광기(전문사회자)

이야기꾼 :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

전문패널 : 노화찬(전 국회의원), 국미애(여성학자)

공연 : 허클베리핀, Sorri(소히)

대나무 숲 - 제3회 여성노동영화제

2013.11.1(금)~11.3(일) 인디플러스(신사역 인근)

11월 1일(금) 19:00 나는 너다 / 이상한 나라의 서비스 / 살롱드 보아GV
/ 인 굿 컴퍼니GV / 21:30 나의 신상 구두

11월 2일(토) 13:00 개청춘GV / 15:30 송여사님의 작업일지GV /
17:00 탐욕의 제국 / 19:30 레드마리아GV

11월 3일(일) 13:00 나의 교실GV / 15:00 전설의 여공 : 시다에서 언니
되다GV / 17:00 따뜻한 밥GV

* GV는 감독과의 대화입니다. 출연자의 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다 I am you!

맹봉학 | 한국 | 2013 | 11분 | HD | 칼라 | 드라마

11월 1일(금) 19:00



일지리를 구하던 혜정에게 계약직 전문 상담원 일지리가 들어온다. 혜정은 6개월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하고 회사에 출근한다. 전화상담 중 고객의 욕설을 견디다 못해 전화를 끊은 것이 발단이 되어 징계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니 회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이상한 나라의 서비스 We Sell Emotion

태준식 | 한국 | 2010 | 30분 | HD | 칼라 | 다큐

11월 1일(금) 19:00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관한 이야기. 마치 연극배우처럼 일상적인 노동의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지내야 하는 '감정노동'에 대해 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 보려한다. 넘쳐나는 서비스 공화국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강요할 수 있을까?

살롱드 보아 The Room of Drink

손해숙 | 한국 | 2013 | 16분 | HD | 칼라 | 드라마 | 영문자막

11월 1일(금) 19:00



퇴근 무렵 주현은 사장님의 심부름으로 어떤 곳으로 오게 된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장님이 접대중인 룸살롱. 어쩔 수 없이 착석하게 된 주현은 접대부까지 함께 해야 하는 이 방이 불편하다.

인 굿 컴퍼니 In Good Company

김성호 | 한국 | 2012 | 33분 | HD | 칼라 | 드라마

11월 1일(금) 19:00



대기업과의 계약을 앞두고 한창 정신없이 일하는 영진기획 사보팀. 팀장 철우는 사장으로부터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때 아닌 권고사직을 받은 여직원, 그리고 그에 반발하는 다른 직원들. 그녀들은 공생을 위해 뚝돌 뚝돌 파업을 선언한다. 대기업에 넘겨야 할 사보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 철우는 직원들을 노련하게 설득해 가며, 권고사직을 받은 여직원을 고립시켜간다. 그리고 그 사이, 영진기획 사보팀에선 처음과 다른 의미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한편, 만삭의 몸으로 유치원에 출근한 철우의 처 연주는 출산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 곁엔 워킹맘을 둔 탓에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유치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을 뿐. 그렇게 학부모를 기다리며 아이들을 돌보던 그녀는 마침내 라지게 되는데... '가족'을 주제로 한 온니버스 영화 <가족시네마> 중 한편.

나의 신상 구두 My Fancy High Heels

호 차오 티 | 대만 | 2010 | 55분 | Digi-beta | 칼라 | 다큐

11월 1일(금) 21:30



멋진 하이힐에 얽힌 꿈과 이야기를 그린 영화. 유명상표가 붙은 하이힐을 사려면 3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 도대체 하이힐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을 조달해서 작업대로, 제조업체에게로 보내고 흰 백한 같은 발이 하이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이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걸까? 가족을 돌보는 여인, 근로자, 일을 맡은 제조공장의 매니저, 하이힐을 신는 부유한 뉴욕의 젊은 여성 등 그들은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영화는 그들의 꿈을 주된 테마로, 아름다운 하이힐 구두 한 켤레가 걸려온 이야기를 보여준다.

※ 이 영화에는 도축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약자, 임신부 및 심약자는 관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청춘 The blossom of youth?

여성영상집단 반이다 | 한국 | 2009 | 83분 | DV | 칼라 | 다큐 | 영문자막

11월 2일(토) 13:00



스물 일곱의 봄, 나(반이다의 경화)는 친구들과 함께 20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7년차 대기업 직장인 민희와 술집 직원 인식, 촛불집회에서 만난 방송국 막내작가 승희가 주인공이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보여서 섭외를 했지만, 막상 촬영을 해보니 불안한 한국사회의 현실만큼 그들의 삶도 불안하다. 민희는 전망을 가질 수 없는 회사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인식은 자신의 가게를 내기 위해 배우고 싶은 일이 많다. 승희는 입봉을 위해 휴일도 없는 뻘뻘한 회사생활을 버리고 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반이다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에도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우리는 1년 동안 희망 비슷한 것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송여사님의 작업일지 Song's Worklog

나비 | 한국 | 2011 | 39분 | HDV | 칼라 | 다큐 | 영문자막

11월 2일(토) 15:30



나(감독)는 어느 날 엄마로부터 "노조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놀랐다. 나는 엄마를 평범한 엄마일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엄마는 10여년동안 도시가스 검침점검원으로 노동을 해오고 있었고, 스스로를 검침점검원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엄마는 사업장을 옮기며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고, 나는 그런 엄마와 엄마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다. 당연히게도 소송은 엄마와 동료들에게 불리하다. 엄마는 소송에 이길 수 있을까?

탐욕의 제국 The Empire of Shame

홍리경 | 한국 | 2013 | 100분 | HD | 칼라 | 다큐

11월 2일(토) 17:00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산업 재해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탄 세상 같았어요. 회사에 가면 남녀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조그만 다른 나라 같았어요. 신기했어요. 그 안에 회사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내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 라인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기억나고... 진짜 로봇들이 일하는 거 같았어요." 깨끗한 방에서 하얀 방진복, 하얀 방진모, 하얀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놓고 일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레드마리아 Red Maria

경순 | 한국 | 2011 | 98분 | HD | 칼라 | 다큐 | 영어자막

11월 2일(토) 19:30



한국, 일본, 필리핀에는 다양한 직업과 역사를 지닌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다. 이 영화는 그들 중에서 가사 노동자, 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위안부 등으로 불리는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메라는 그녀들의 일상을 따라간다. 그녀들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은 제각기 달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한 가지 공통점에 의해 국경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들의 몸과 노동이 그것이다. 어떻게 서로 다른 노동이 그토록 비슷한 방식으로 '몸'에 연결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치게 된다. 사회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노동'의 의미가 그것이다.

나의 교실 Dear My Frineds

한자영 | 한국 | 2012 | 65분 | DV | 칼라 | 다큐

11월 3일(일) 13:00



상업고등학교 3학년 취직반 학생들의 이야기. 수능이 가까워진 시기이지만 학생들은 시험이 아니라 면접 준비에 한창이다. 먼저 취직이 된 친구들은 학교가 아닌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남은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스펙관리를 한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감독이 자신의 모교를 찾아 후배들과 찍은 다큐멘터리.

전설의 여공 : 시다에서 언니되다 My Wonderful Career

박지선 | 한국 | 2011 | 75분 | HDV | 칼라 | 다큐

11월 3일(일) 15:00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출산업의 역군이라 불리웠던 여성노동자들은 '여공'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열두살, 열네살 때부터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흔히들 '여공'이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마싱, 먼지 날리는 공장, 어린 시다들, 잔업과 저임금... 하지만 그것들은 그녀들이 기억하는 시간들의 배경일 뿐 그녀들의 삶에 등장하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따뜻한 밥 108 Days of Our Lives

박지선 | 한국 | 2013 | 95분 | HD | 칼라 | 다큐

11월 3일(일)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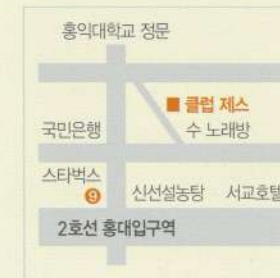


2012년 1월 1일,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환자식의 조리과 배식을 담당하던 여성노동자 19명이 해고당한다.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적게는 1년, 많게는 30여 년 동안 일해 온 그녀들은 병원과 용역업체 CJ프레시웨이와 상대로 천막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다. 100일,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투쟁에 나선다.

관람안내

예약 및 문의: 한국여성노동자회 Tel.02-325-6822

- * 전래동화, 당나귀귀, 대나무숲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http://kwwnet.tistory.com> 참고해 주세요.
- * 오시는 길



'을'들의 당나귀 귀는 아름다운재단의 2013변화의 시나리오로 지원됩니다.